대학 교육의 내용 및 교수법 : 교수의 역할

길임주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Ⅰ. 들어가는 말

요즘 들어 대학가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수법을 개발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수법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는 초·중등 교사와는 달리 교수법에 대한 연구개발 없이도 자신의 전공에만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교수(teaching)는 자연히 흘러나오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대학사회를 둘러싼 제반 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는 대학생들을 기초학력보강부터 시작하여 학습전략 및 리포트 쓰는 법, 시간관리법까지도 가르쳐 고등학교 생활과는 연속성이 없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의 적응력을 높여주고 또 수업에서는 그들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하여 가르쳐야한다. 학생들의 개별화된 차이와 결손을 발견하고 보완해주는 것은 교육자의 의무이고 도리이지만, 한편 이미 발달 단계상 성인초기에 진입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가르쳐주어야 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한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생긴다.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보완하는 것은 대학생으로서 이미 지니고 있어야 할 발달과업인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대학진학을 위한 학업에만 정진하여 진학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예비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도 길러주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력이 다른 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구나 효율적인 교수법 개발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다. 최근의 대학의 주어진 현실에서 대학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가에 대해 원론적인 측면에서 돌아보고 교육내용과 교수법, 교수(professor)의 일체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Ⅱ. 대학의 교육내용 : '판단' 능력의 개발

먼저 정보화시대의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교육내용은 일반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중등 교육기간은 오직 입시라는 한 가지 목표만

을 향하여 한국 사회 전체가 치르는 열병과도 같은 관문이라고 체념한다면, 대학에서는 중등교육의 결과를 보완하고 학생들의 미래지향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에서의 교육내용은 대학의 정신 및 근본이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최근의 한국대학은 고등교육단계로의 진학률이 70%가 넘는 세계적인 수치를 보여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지만, 대학이 추구하는 정신과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이상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학이 질적으로는 발전보다는 후퇴하였거나, 대학이 철저히 대중적으로 탈바꿈한데 따르는 가치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그만큼 최근의 대학은 사회의 한 구성요소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무반성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를 정화하고 이끌어나갈 원동력과 기능은 상실한 채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만큼 현 사회의 변화는 대학의 구조와 역할도 기존의 것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이미 상아탑의 이미지가 말해주는 진리탐구의 장소가 아니며, 사회 정치적 요구에 기술전문직으로 포장된 응용과학의 정신으로 대응하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대학의 이념과 목적은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고전적인 이상을 표방하고 있으니, 대학교육의 실행과정에서 요소와 구성원들간의 단절과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미 대중화된 대학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의 교육내용과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있다. 대학이 암기위주의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경험적 지식의 획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지식을 재구성하며 창출해야하는 21세기를 생존하기 힘들뿐더러 대학이 사회발전의 동력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여기서 우리가 암기위주의 교육이라고 하여 지탄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암기위주 교육의 폐해로 보고 있다.

또 현 7차 교육과정은 외형적으로는 학생중심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으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7차 교육과정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은 그 운영면에서 수업의 내용수준이 학생의 학습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준별 교육과정은 평가 가능한 내용만을 교육내용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점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평가위주의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특징에 따라서는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반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및 학습성과를 몇 가지로 유형화한 수준별 단계에 맞추어 평가함으로써, 개인차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학은 중등교육에서 창의성의 계발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선정과 제시에서 평가결과 관찰할 수 있는 내용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오우크쇼트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은 '정보'와 '판단'이라는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정보'가 온전한

“

대학교육에서는 교육내용의 묵시적 차원이 명시적 차원과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의 획득과 함께 ‘판단’의 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고 본다.
대학이 묵시적 차원의 지식과 아울러 판단의 능력을 가르칠 때
한국대학의 생명력은 활성화되고 지속될 것이다.

”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판단’이라는 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지식을 이루고 있는 ‘판단’의 요소는 ‘정보’에 비해 그 존재가 의식되기 어려우며 정보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 그는 교육내용의 핵심은 ‘판단’이며, 교육방법면에서 볼 때 ‘정보’와 ‘판단’이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판단’은 명시적 차원의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교육 내용의 묵시적 차원이다(차미란 역, 1992).

따라서 대학교육에서는 교육내용의 묵시적 차원이 명시적 차원과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의 획득과 함께 ‘판단’의 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고 본다. 대학이 묵시적 차원의 지식과 아울러 판단의 능력을 가르칠 때 한국대학의 생명력은 활성화되고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판단’의 능력은 어떤 교수법을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지를 최근의 교수법의 변화양상과 함께 진단해 보고자 한다.

Ⅲ. 교수법 변화의 요구 : 재미있는 웹기반 교육

대학교육의 핵심인 ‘정보’와 ‘판단’을 소위 어떤 ‘교수법’으로 가르쳐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의 지속적인 유발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원래 동기란 어떤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정해주는 심리적 요인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학습을 유발하고 유지시켜주는 요인이 학습동기인데, 이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수법의 요구는 세대간 차이의 심화와 교육환경의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 급변하는 세대간 사고 및 인지구조의 차이는 새로운 교수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으로 ‘재미있는 수업’에 대한 요구를 들 수 있다. 물론 수업이 흥미진진하게 학생들의 동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더 깊고 의미 있는 세계로 인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재미있는 수업’에 대한 요구는 모든 것이 손쉽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자라오며 심지어는 교육조차 암죽식으로 풀어 먹여주는 것을 수용하던 학생들에게 있어 당연한 요구이며, 흥미위주의 인터넷 교육사업의 확산은 교실수업에서의 재미의 요구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쉽고 재미있게 얻어지는 내용만을 의미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얻어질 수 있

는 평범한 진리조차 상대적으로 여기게 되었다. 학생들은 자연히 언어와 문자 위주의 교육은 재미없고 의미 없는 수업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은 대학생들의 수강패턴을 재미있고 쉬운 강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급기야는 대학의 기초학문은 어렵고 지루하다고 외면당하기에 이르렀다.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여 더 많은 사회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어렵고 힘들면서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길을 택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둘째,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수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웹기반 교육의 확산이다. 공학의 발달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칠판과 분필의 모습을 갖춘 전통적 교실에서 전자칠판과 빔프로젝터를 기본으로 한 멀티미디어적 첨단식 교실로 바뀌고 있으며 학생들도 첨단교실을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공학의 발전은 웹기반 교육이 언어와 문자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을 완전히 대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고,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함께 자라온 세대의 학생들에게 언어와 문자위주의 교육내용보다 동영상과 함께 하는 사이버수업의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것이 재미있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새로운 시청각적 교수매체가 언어와 문자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해 주고 추상성을 완화해 주어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어와 문자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종종 간과할 때가 있다. 언어와 문자가 지니고 있는 기능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뿐 아니라 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 또는 맥락과 함께 이해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유사 이래로 언어와 문자가 배제된 교육은 생각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교육방법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해온 것은 아마도 언어와 문자의 역할을 대치할 만한 마땅한 도구가 딱히 발견되지 않은 때문일 것이다. 교수매체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은 사용된 교수매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수매체의 효과는 매체자체의 효과라기보다 교수매체를 사용하기 위하여 수업내용의 제시방법이나 내용이 재구조화하는데 따르는 효과라고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매체의 사용으로 인한 신기 효과이며 이것은 초기에는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효과가 점차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 정보화시대가 가속화되는 21세기의 대학에서 웹기반 교육이 언어와 문자를 대치할만한 교육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위치를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Ⅳ. 교수법의 전략화의 의미 : 교육목적의 수단화

21세기 대학의 구조적 해체로 예측되는 것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대학의 모습을 이동대학, 사이버대학의 형태로 부추겨 탈캠퍼스적 체제로의 전환이 근간을 이룰 것이라고 본다. 탈캠퍼스적 체제에서의 대학교육은 웹기반 교육이 주를 이룰 것이다. 웹기반 교육의 이론적 관점이 되는 구성주의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하면서 학습을 하고 이때의 교수는 학생들

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웹기반 교육방법의 효과성을 언급하기에 앞서 교육방법의 문제는 교육목적의 문제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우리의 대학교육의 현실은 대학교육의 본래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대학생들의 교육받는 목적은 취업에 있으며 소위 수요자중심의 논리에 의하면 교수의 목적 역시 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에 있어야하고 대학교육은 마땅히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요구 역시 대학의 교육내용에 산업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교육의 효과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교육은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교수들의 교육하는 목적과 학생들의 교육받는 목적에 차이가 있다면 교수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기 어렵다.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수업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간에 목적이 일치해야한다. 최근 대학의 현실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수들로 하여금 대학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대학교육의 목적을 내재적인 교육의 목적보다 외재적 수단으로 재설정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목적이 이렇게 외재적 수단으로 변질될 때 교육방법은 곧바로 전략적 수준을 요구하게 된다. 최근의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교수법의 전략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교육목적이 내재적 목적이 아닌 외재적 수단으로 변질될 때 전략화된 교수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전략화된 교수법은 교육내용이 전달하는 묵시적인 '판단' 능력의 개발보다는 관찰, 평가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 외재적인 목표만을 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그것은 21세기의 대학 교육이 추구해야 할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즉 교수법을 전략화 하는 것은 반드시 평가결과 쉽게 관찰되는 내용만을 가르쳐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외재적 수단을 빠르게 달성하도록 한다. 이것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동기와 다양성의 존중과는 거리가 멀고 교육내용의 핵심인 '판단' 능력을 전달, 개발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원래 전략이라는 용어는 군사용어로 '군사작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Leshin(1992)등은 수업전략이나 전술은 교수법으로 학습을 촉진하는데 사용되지만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교수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는 하나의 조건이지 교수법은 아니라고 하였다(Leshin et al, 1992). 따라서 대학의 수업을 기술이나 전략만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근본적으로 수업이 기술이나 전략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의 상황은 수업기술이나 전략의 발달이 교수 없는 온라인 수업을 실현시켜 탈캠퍼스 체제까지 부추기고 있으나, 수업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교수의 가르침이 수업내용과 함께 학생들의 정신세계에 재연되고, 나아가서 학생 스스로 얼마나 그것을 가치로운 방향의 판단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언어와 문자위주의 교육방법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뿐 아니라 그

것이 포함된 상황까지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대학생들에게 '판단'의 묵시적 차원을 정보와 함께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탈캠퍼스 체제를 앞두고 대학교수의 역할은 이렇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과 함께 재조명되어야하며, 삶의 과정 자체가 재미는 없지만 인내심 있는 배움의 과정으로 점철된 교수가 인격체로 존재하지 않는 웹기반 수업은 교육의 수단이며 재미를 수동적으로 넣어주는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교육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인지발달의 단계상 상징적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재미있는 교수매체를 통한 감각적 훈련만으로는 '판단' 능력의 개발이 어려울 뿐더러 학습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도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Ⅴ. 맺는 말

결론적으로 양질의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이념 및 목적이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재정립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 체제 속에서의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교육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학이 사회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목적이 외재적 수단화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대학이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되려면 변화하는 사회의 구심점에 몸을 던져야만 그 다음의 변화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오히려 대학이 사회변화를 따라가기에 급급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이 외재적 수단화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교육이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면서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변화의 구심점에 서려면, 대학의 교육내용과 교수법, 교수가 분리되지 않으면서 언어와 문자 위주의 전통적 교육방법이 꾸준히 존중되어야 한다. 교육내용과 교수법, 교수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 교수법은 전략화 되고 교육목적은 외재적 수단으로 끊임없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대학은 사회변화를 따라가기에 급급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미있는 웹기반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수법이 학생들의 '판단' 능력의 개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외재적 목적까지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자 위주의 교육방법과 그것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교수의 경험이 존중되어야한다.

참고문헌

차미란(2003). **오우크쇼트의 교육이론**. 성경재, 교육과정철학총서 09. 교육과학사

Leshin, C. B., Pollock, J., & Reigeluth, C. M.(1992). *Instructional design strategies and tactics*. Englewood Cliffs,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길임주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교육심리전공으로 Ph. D를 취득하였다.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학생생활연구소장을 지냈고, 현재 교무부처장 겸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다.